

8월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21.62 (-22.34)	811.02 (-13.3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68 (-0.019)	1310.60 (+2.70)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23에서 김대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생성형 AI '가우스' 첫 공개

문서요약·코딩 척척 업무·사업 대폭혁신

삼성 AI 포럼 2023

천재 수학자 '가우스'에서 영감 텍스트·코드·이미지 모델 구성 개인정보 지키면서 기기도 제어 차세대 스마트폰 등 단계적 탑재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개했다. 텍스트, 이미지, 코드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생성형 AI에 전송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한 차세대 기기에 탑재돼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8일 서울 R&D 캠퍼스에서 '삼성 AI 포럼 2023' 두번째 날 행사를 이어갔다. 삼성 AI포럼은 삼성 S AIT(구 종합기술원)과 삼성리서치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세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AI 핵심 기술 발전 방향과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와 전세계 AI 전문가가 150여명이 참여해 기술을 교류하고 발전 방향과 혁신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삶을 변화할지에도 고민했다.

특히 삼성리서치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처음 공개했다. 천재 수학자 '프리드리히 가우스'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삼성 가우스는 머신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3가지 모델로 구성했다.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Samsung Gauss Language)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Samsung Gauss

Code)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Samsung Gauss Image) 등이다.

각 모델은 챗GPT와 같이 언어를 이해해 메일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요약하는 등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대화형 인터페이스로도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미지도 간단한 작업으로 해상도를 변경하거나 바꿔준다.

특히 가우스는 오프라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적용했다.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기기를 제어하고 문장을 요약하는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 사내 업무를 대폭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에 단계적으로 탑재하며 하이브리드 AI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 AI포럼에서는 오픈AI 제이슨 웨이 연구원과 정형원 연구원을 비롯해 고려대 서홍석 교수와 서울대 황승원 교수 연구실 등에서 다양한 생성형 AI 현황과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인한 페르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 멀티모달 대화형 AI와 언어모델 평가 방법 등 생성형 AI와 관련한 이슈와 활용 및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주제를 고민했다.

삼성리서치 글로벌AI센터 김대현 부센터장(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경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벼랑 끝 위기' 한전, 본사조직 20% 줄인다

위기 대응 특단의 자구책 추진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눈덩이 빚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본사조직 20%를 축소하고,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시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구대책은 한전이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력그룹 25조7000억원 규

모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본사조직 정비를 통해 본부장 직위 5개중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의 20%를 축소한다. 이는 2001년 발전사 분사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조직 축소와 핵심 기능 강화가 골자다.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해,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은 폐지해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기능은 강화한다. 사장 직할에 준법경영팀을

신설해 내부 부조리 예방 및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기로 했다.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한전 사업소 거점화와 업무 광역화를 통해 25% 수준의 단계적 효율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외고객이 없도록 현장지점을 별도 운영해 국민 전력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 488명을 2023년 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 인력을 추가 감축한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제네시스 인기로 수입차 점유율 감소

수입 승용차 점유율이 올해 국내시장에서 2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등 국산 고급 승용차의 선전과 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 1~10월 신규 등록 승용차 125만8천89대 중 수입 승용차는 22만6천602대로 18%의 점유율을 보여 연간으로 20%를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C 인근에서 통행하는 국산·수입 차량들. /뉴스1

尹, 취임 첫 APEC 참석... 시진핑 정상회담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민 방문, 프랑스 방문을 비롯해 내달 수교 후 첫 방문인 네덜란드 국민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우리 동포들과의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해,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투자신고식 참석, APEC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의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다.

이틀째인 16일에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창조'를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와 정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

게 의견을 나누는 '리트리트'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당 "국가안보실, 김건희 트위터 계정 관리 사과해야"
- ▲ 민주당 "검찰, 괴롭히기식 참고인 소환 또 시작... 증언받들기 시도" /사진 뉴스1

- ▲ 샷대질·고성 오간 국회 국방위원회 파행
- ▲ 민주당 "윤, 전통시장 먹방쇼 말고 민생 예산 복구해야"



- ▲ 김기현 '내년 총선 불출마' 시사... '친윤·중진 힘차 출마' 물고 뜰까 /사진 뉴스1
- ▲ 여당에 정국 주도권 빼앗긴 민주당... '무기력' 비판론 대두